

다산포럼



김재민 철학자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암기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모든 학습은 '암기'를 기본 축으로 한다. 배운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배운 것이 단편적 정보건, 지식이건, 노하우건, 기교건, 그 무엇이건 간에 말이다. 따라서 교육자가 암기를 기피하거나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 암기가 교육의 기본이자 주춧돌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검색보다 암기가 항상 더 빠르다.

중요한 건 '무엇을 암기해야 하는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이다. '주입식 교육'은 교육 당국이나 교사가 암기를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왜냐하면 아닌 바로 그것을 암기해야 하는지 몰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에, 교육 철학이들로 산으로 바다로 아무 데로나 갔다.

일단 피교육자에게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암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가 때문이다. 아쉽게도 당사자에게 결정권을 넘기기에 제약이 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판단력을 길러야 하는 학생

생성 인공지능의 시대, 암기 교육이 필수다

에게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건 분명하다. 따라서 그전까지는 교사가 암기할 사항을 지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정해주는 것이 적절할까?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기성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식과 기술의 양과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지식과 기술로 평생 직장 생활을 해낼 수 있었다. 이런 경우라면 암기할 사항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 많이 양보하더라도, 선진국에서 지정해 준 양과 범위를 받아들여도 충분했다.

지금은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산업화 시대를 기준으로 삼는 어리석음에서 열린 탈출해도 이미 늦다. 이미 생성 인공지능이 원하는 것을 생성해 주는 시대다. 물론 생성물이 완벽하지는 않다. 아니 완벽할 수 없다. 인공지능이 생성해주는 것에 만족할 정도라면 평균치를 넘지 못하니까. 인공지능 생성물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을 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본디 '더 나은'을 지향하는 존재기 때문이다. 아니 '조금이라도 다른'이라고 해야 어울릴지 모른다. 인간은 지루한 건 참지 못하니까. 결국, 조금이라도 다르면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흥미롭게도 인간과 인공지능이 무언가를 생성하는 과정은 상당히 유사하다. 그것은 '암기 → 검색 → 생성'의 순서를 따른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 더 정확히 살펴보면, 인간은 '암기 → 내적 필요 → 검색 → 생

성'의 순서를 밟지만, 인공지능은 '암기 → 외적 요청 → 검색 → 생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내적 필요'와 '외적 요청'의 차이가 인간과 인공지능을 나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인간이 생성하려는 이유가 뭔가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풀라고 시킨 문제를 풀 뿐이다. 확연한 차이가 느껴지는가? 인간에게만 창의성이 발견되는 이유다.

인간은 문제를 느끼고 정의하고 해결하는 존재다. 이는 생명의 과정이기도 하다. 산업화 시대에도 교육은 이 과정에 충실했다. 지금도 그래야 하지만, 조건이 바뀌었다. 지금은 산업화 시대의 규칙이 사라졌다. 개개인 개인 컴퓨터로 무장해서, 19세기였다면 공장이라 불렀을 것을 각자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각자가 생산 수단 소유자다. 물질(아름) 생산물과 달리, 디지털(비트) 생산물은 재생산과 유통 비용이 무료로 수렴한다. 구하는 지식과 기술은 대학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며, 오히려 대학보다 넓은 원천이 내려 있다. 그렇다면 교육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적어도 교육해야 할 역량의 기초에 문제를 느끼는 힘이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비판의 출발은 문제를 느끼고 표현하는 데 있다. 자유라는 조건이 꼭 필요한 이유다. 이제 주위를 살펴보자.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혹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은가? 알게 모르게, 모두를 나락으로 데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社說

전두환 손자 사과 '보여 주기' 그쳐선 안 된다

전두환 씨의 손자 우연(27) 씨가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전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7일 미국 뉴욕 공항을 떠나 28일 한국에 도착한 뒤 정부 기관에 의해 바로 잡혀 들어가지 않는다면 집만 풀고 5·18 유가족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광주행 의사를 밝혔다. 전 씨는 마약 추정 약품 투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앞서 SNS에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며 "제 가족들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폭로에 나섰다고 주장, 이목을 끌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추측도 있지만 그의 증언은 의미가 있다. 직계 가족임에도 전 씨를 5월 학살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그가 광주를 방문해 사과하면 광주 학살 주범으

로 꼽히는 전두환 씨의 직계가족 중 처음으로 사죄하는 사례가 된다.

전두환 씨는 1997년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지만 "광주 사태와 무관하다"고 잡아떼다 2021년 사망했다. 직계 가족 역시 그동안 같은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

5월 유족들과 단체들은 일단 전 씨의 사과와 회개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사과에 앞서 그가 폭로한 내용들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조진태 5·18기림재단 상임이사는 "1980년 당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밝힌다면 진정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 씨의 광주행이 보여 주듯 사죄로 끝내지 않으려면 전두환 씨의 5월 관련 사실을 적극 증언하는 등 5·18의 실제적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진정성 없는 사과는 5월 희생들과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광주 쓰레기 소각장 주민 수용성 강화부터

광주시가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위한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2030년부터는 생활 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내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원 회수 시설(소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에게 시설 규모, 부지 면적, 주변 주민 지원, 환경오염 물질 관리 계획, 입지 선정 절차 등을 설명한다.

광주시는 이날 제시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 및 입지 선정 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중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인·단체가 건립을 희망하면 후보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2030년부터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 광주시의 경우 2029년까지는 소각장을 완공해야 한다. 하루 65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경우 4000억 원 안팎의 사업비가 소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각장이 기피 시설로 꼽히는 만큼 건립 후보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향후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말 폐쇄된 상무소각장도 2000년 9월 완공됐지만 집단 시위와 법정 소송 등 유여국절을 거쳐 2001년 말부터 겨우 가동됐다.

현재 광주시의 생활 쓰레기는 남구 양곡동 위생매립장에 매립되거나 나주의 고흥폐기물 열병합발전소로 보내 처리된다. 하지만 머지않아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독자적인 소각 처리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관건은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높이는지이다. 쓰레기 처리 시설은 지하로 뚫고 지상엔 공원·체육시설을 조성해 오염 배출을 최소화한 경기 하남시의 사례처럼 자연 친화형 시설로 부정적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꾸려 협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춘천 특특

무너지지 않는 성벽 쌓기



김유나 동신대 방송선학과 2년

태풍이 몰아치면 지나간 자리는 초토화되지만 태풍의 중심인 태풍의 눈은 고요하다. 바깥은 비바람이 치지만 태풍의 눈은 평화로운 상태다. 거대한 태풍도 그렇게 중심이 있다.

그리고 태풍은 자연스레 소멸되고 다시 생긴다. 나는 태풍이 우리 인생과 비슷한 생각을 했다. 어떤 일이 잘 풀리다가 막히기도 하고, 새로운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다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기 때문이다. 어릴 때는 내가 동화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내 인생도 결국 해피엔딩을 맞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커가며 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맞지만, '인생은 동화가 아니다'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

2022년은 내가 꿈꿨던 스무 살 성인이 된, 매우 설레면서도 걱정이 많았던 한해였다. 대학생이 되며 여유 시간이 늘어, 그동안 하고 싶은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처음 하게 되는 사회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막막함,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정보, 자유가 주어질 만큼 따르는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무서웠다.

두려움의 원인은 자책지심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성과를 내는 것 같은데 나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 같아 조금씩 걱정되고 무서웠다. N포 세대, 헬조선, 울로 등 뉴스를 볼 때 심심치 않게 나오는 단어들이 마치 내 이야기 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김미경 강사의 영상을 보게 됐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된 이 영상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

영상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샘 리처즈 교수에게 초대를 받아, 김미경 강사가 20분 정도 짧은 강의를 하는 내용이었다. 그 중 나에게 가장 자극을 준 것은 용어를 배우게 된 이유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27년 동안 동기 부여 강사를 하며 상당히 유명해졌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동기 부여 강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이 오십이 넘어 용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많아 힘들다' '너무 늦은 나이'라며 만류했지만 2년 동안 매일 공부한 그는 800명의 대학생 앞에서 영어로 강의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웠다.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에게 '처음 5분간은 떨렸지만 앞으로 영어 공부를 더 해서 지금보다 더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다음 강연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에게 끊임없이 동기 부여를 하는 모습

을 보며 대단하다 생각하면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속도가 있고,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시간 역시 다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내 문제를 인지하고 난 뒤 인정을 하기로 했다. 원래 생각했던 목표를 세분화해 하나하나씩 이뤄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처음엔 그것도 어려웠지만 익숙해진 덕분에 매일 세운 목표인 'X'보다 'O'가 더 많아졌고,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처음보다 좋아진 내 모습을 보며 더 노력해서 꼭 목표를 이루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미국의 교육자 존 A. 웨드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 두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배의 쓰임은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것이 배 발명의 이유라는 것이다.

안전한 곳에서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련을 겪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대하는 자세, 개척하는 자세, 노력하는 자세 인 것 같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견고한 성벽을 쌓는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건 전보다는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성벽을 쌓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성벽을 쌓다 보면 언젠가 무너지지 않게 되지 않을까?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이 오기를, 해피엔딩의 결말이 열릴 수 있길 소망한다.

無等鼓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조만간 난상 토론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한 뒤 대어섯 차례 난상 토의를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원위원회 개최는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및 파견 연장' 논의 이후 19년 만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2일 의원 정수의 현행 유지를 전제로 선거제도 개편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전원위 상정 안건은 △중대

단 지성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는 집단이 기주의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야는 '국민 정서'를 변명으로 제시할 것이다. 선거제 개편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적대적 공생 관계로 인한 소모적 정쟁 구도는 물론 특정 정당의 영호남 독점 구도 등의 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집단 지성의 시간

소선거구제 등 현재의 선거제도는 1988년(13대 국회) 이후 30년 이상 큰 틀에서 유지됐다. 민주화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지만 그동안 안팎의 정치적 패배도 만만치 않다. 승자 독식의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가지다. 여야는 전원위에서 도출된 단일 개편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원위가 개최된다 해도 기존 선거 제도의 틀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여야와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위성 정당 방지 등 연동형 비례제도를 손보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를 위한 과감한 변화를 택하는 집

정치 문화는 물론 지역과 진영의 대립을 부추기고 여야 간의 정쟁 구도를 고착화시켰다는 평가다. 현재의 선거 제도도 정치 발전을 막고 미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변화된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과감한 선거 제도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기득권에 묶여 선거 제도 개편은 개헌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지만 21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시대를 위한 집단 지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 이사

기고

광주의 야생차밭



정범중 작가

광주에 야생차밭이 있다. 사람들은 무등산에 있을 거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 어등산에 있다. 광주의 해돋이산은 무등산이고 해넘이산은 어등산이다. 무등과 어등, 등등으로 운이 맞는다. 무등산은 거대하게 뭉쳐 있고 어등산은 넉넉하게 풀려 있다.

어등산에서 야생차밭이 있는 곳은 절골이다. 이곳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생소할 텐데, 어등산 절골은 지금 골짜기가 있는 곳이다.

나는 차를 마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차나무를 보고 자랐다. 고향인 보성군 득량면에는 다전(茶田) 마을이 있고 고향 마을인 못골(池洞)에도 대밭에 차나무들이 있다. 보성 화천면 붓재의 다원에도 자주 갔다. 그래서 차밭을 보면 정겹다. 당연히 이십여 년 전에 어등산 절골의 야생차밭을 처음 만났을 때도 반갑고 정겨웠다. 여기서 수십 명이 차 찻을 따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더욱더 그랬다.

광주에서 살면서 봄에 차 찻을 딸 때만이 아니라 가을에 찾았어 피었을 때도 어등산 야생차밭에 갔다. 이곳의 야생차밭은 한마디로 넓다. 축구장 대여섯 개에 해당하는 넓이다. 이렇게 넓은 야생차밭을 광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걸 나는 기쁨으로 알았다. 더구나 이곳에는 백년이 넘은 차나무가 심어 그루나 있었다. 밑둥이 내 손목 정도 되고 높이가 2m 안팎인 차나무들이었다. 다른 야생차밭에는 볼 수 없는 오래된 차나무들이었다.

어등산에서 시민을 위해 유원지를 만드느니 어쩌느니 하는 말이 나오더니 공사판이 벌어졌다. 야생차밭의 밑자락을 파고 골짜기가 만들어졌다. 골짜기는 야생차밭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다.

야생차밭은 골짜기에 의해서 밑자락만 훼손된 게 아니었다. 골짜기 건설을 시작할 당시 누군가 백 년이 넘는 차나무들을 파 갔다. 줄기를 톱으로 잘라내고 밑둥과 뿌리만 가져간 걸로 보아서는 본재를 만든다고 그런 듯했다.

나는 분노하고 실망했다. 분노를 가라앉히고 실망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차를 마셨다.

그렇게 지내는데 야생차밭에 백년이 넘은 차나무가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맑게 사는 사람들이 재야에 있듯이.

나는 야생차밭을 찾아가서 꼼꼼히 살펴보았다. 기대가 어긋나지 않아서 백여 년이 된 야생 차나무 두 그루를 발견했다. 두 그루 가운데 한 그루는 위로 서면 3m에 이르는, 한반도의 야생 차나무로서는 거목이었다.

나는 매년 백여 년이 넘는 이 차나무들을 보러 절골로 간다. 골짜기에 길이 막혀바로 갈 수 없었기까 먼저 산정동 가야저수지 위쪽에서 시작하는 산길을 타고 주

능선으로 올라간다. 주능선을 함참 타고 가다가 절골로 내려간다.

그런데 야생차밭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서 사람들이 봄에 차 찻을 따러 오지 않자 숲이 무성해졌다. 으름덩굴이며 철이 야생차밭을 덮고 산딸기나무 같은 떨기나무가 산길을 지켰다. 그래도 나는 매년 야생차밭으로 간다. 차 찻을 따서 황차를 만든다. 백 년 넘는 차나무 두 그루를 만나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야생차밭에 있으면 골짜기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매일 수백 명이 산행하는 어등산을 피해져 만든 골짜기에 몇 명이 높고 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수백 명을 외면하고 몇 명을 위해서 산을 피해져 골짜기를 만들었다는 게.

이해할 수 없는 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준 기관도 없었다. 돈을 더 투입하면 좋은 유원지가 될 거라는 말은 들었다. 이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이 어지러워도 봄은 온다. 그러면 차 찻을 딸 때가 된다. 올해 봄에도 나는 어등산으로 갈 것이다. 야생차밭에서 차 찻을 따서 야생차를 만들려고.

내가 야생차를 만든다고 하면 주위에서 묻는다. '역시 야생차는 향기롭지요?' 나는 아니라고 알려 준다. 향기로운 차는 다원에서 만들어진 차이다. 다원에서는 향기를 잘 내는 품종을 심기에 거기에서 나온 차는 향기롭다. 야생차는 예전부터 있어 온 차나무-품종 개량이란 걸 겪지 않은 차나무에서 비롯한 차여서 은은하다.

세상에서 은은함이 자주 사라져간다. 조금 남은 것이라도 나는 지키고 싶다. 은은하게 살기 위해서.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